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53-1호 2003년 2월 27일(목)

제목1: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 동의서 송부요망

-총회에서 협회비를 2월까지는 기존 30만원으로하고, 3월부터는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를 협회비로 대체하여 가입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회사별로 동의서를 보내었사오니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회사마다 방문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2: 농협-축산부문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지난 17일 축산경제부문 대표이사과 관련 사장, 부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 및 분사 경영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경영협약에 따라 농협 축산경제부문 각 사장들은 협약범위내에서 자율경영이 보장되고, 경영실적에 따라 책임도 지게 된다.

협약식에서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양축농가의 실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신사업 개발과 사업확대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농협 축산경제부문은 지난해 'Let's Plus 100운동'을 통해 목표손익 100억을 초과달성 한 바 있다.

발췌:농업인신문

제목3: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

사육단계에서 동물약품 등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식육 중 미생물·잔류물질 검사 강화 및 HACCP 정착 등 도축·가공·보관단계의 과학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을 연계한 계열화를 촉진하고 냉장·부분육, 브랜드육 유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은 고가전략으로 나가되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입할 때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확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을 통·폐합해 시설 개선을 유도. 1개소에 총 사업비 80억5600만원 지원. 인접 시·도의 기존 도축장 3개소 이상 통·폐합을 원칙으로 지원. 우선 지원은 도축장 통·폐합 개소수가 많은 계획서를 제출한 도축업체로 도축능력 총 합계가 큰 것을 우선 지원.

발췌: 한국농어민신문 도축관련분야만 발췌

제목4: 돼지냉도체 등급판정, 시범 사업장 8곳으로

-다음달 3일부터 돼지 냉도체(울돼지) 육질등급판정 시범사업장이 8개소로 확대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작년 4월 15일부터 농협 김제육가공공장, 대상농장, 농협 나주공판장, 아성식품에서 실시됐던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이 3월 3일부터 롯데햄우유, 한냉 중부공장, 하이미트21C, 제주축협 등 8곳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적용작업장은 냉장고 확보, 220Lux 이상의 조도, 좌반도체의 흉추부위 절개 등 시설과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등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장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작년 11월 29일 돼지고기 새기술 평가회에서 물돼지 방지책으로 냉도체 등급판정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냉도체 등급판정이 물돼지 생산을 방지, 품질향상과 돼지고기 수출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 축산물 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53-2호 2003년 2월 27일(목)

제목5: 쇠고기 부분육 등급판정사업 1년 평가

-둔갑판매 줄어 소비자 신뢰 품질 높아지고 경쟁력 증가-

쇠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쇠고기 부분육 등급판정사업은 지난해 2월20일 경기 안양 협신식품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어 그해 3월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올 1월 인천 삼성식품으로 확대되면서 산지 부분육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부분육 가공에 따른 포장비·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시행 결과=지난해 2월 협신식품과 3월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쇠고기 부분육 등급판정사업 실시 이후 한달 평균 상장물량은 시행 초기인 4월에 4,150여박스에 불과했으나, 올 1월 들어서는 1만1,100여박스로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낙찰물량도 3,550여박스에서 8,500여박스로 갑절 이상이나 증가했다.

◆성과=축산물 유통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쇠고기 부분육 등급판정으로 등급·부위별 판매가 정착되면서 젓소나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의 둔갑유통 판매가 근절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거래가격도 유통 단계별 지표로 이용돼 고급육의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산지 부분육가공공장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지 축산물 도매시장에서의 도축으로 인한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가 해소됐을 뿐 아니라 통일된 분할·정형 기준에 의한 부분육 생산이 가능해져 공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는 전기료·수도료·인건비 등이 절감돼 경영이 크게 개선됐고, 쇠고기 판매업소는 원하는 부위를 품질에 따라 구입할 수 있게 돼 재고 부담을 덜었다.

운영탁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기술부장은 “쇠고기 부분육 등급판정사업이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차별화로 국내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분육 등급판정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가공업체들의 부분육 생산코드번호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제=부분육 가공에 따라 작업시간이 감절이나 증가한데다 포장비·인건비 등의 부담도 늘었지만 이같은 비용이 경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장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부분육 상장에 따른 중매인 수수료가 낮고 등급 판정에 따른 서류와 표시 절차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것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쇠고기 부분육 등급판정사업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분육 등급판정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상장업체 원료육 구매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췌: 농민신문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